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젠더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2020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전공
배 소 현

젠더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전공
배 소 현

인 준 서

배소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성(Sex)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방법보다 다양한 젠더(Gender)로 구분하는 방식과 태도들이 보이고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의미하는 요소들과 태도, 고정관념들이 변화하고 사라지고 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 역시 여성만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젠더의 행위가 될 수 있다. 대중들이 보는 광고와 영화에서도 젠더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젠더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과거에 비해 발전하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연령대의 대상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젠더의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1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젠더 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로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젠더 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와 선택형 문항을 이용하였다. 젠더 이퀄리티는 평등성, 인지·권리, 다양성을 하위요인으로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총 2개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은 '자신감', '개성표현', '정체성', '타인존중'으로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8.4% 높다. 연구 대상자들의 참여 연령대

중 20대가 6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포함하여 학생 신분이 가장 많았다. 개인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혼인여부는 미혼이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젠더이퀄리티의 모든 변수와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변수는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이퀄리티 중 '인지·권리' 및 '다양성' 변수와 외모관리 행동 중 '정체성' 및 '타인존중' 변수도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변수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 변수는 젠더이퀄리티 중 '평등성'과 인지·권리' 변수 그리고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변수와 유의하지 않았다. 나머지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서는 개인 월 수입별 구분의 경우와 혼인 여부별 구분의 경우 중 평등성에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 특성 중 최종학력과 직업에 따른 구분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특성 차이분석은 각 집단별로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개인 월 수입, 혼인 여부에 자신감 및 개성표현, 정체성 및 타인존중, 정체성, 개성표현, 정체성 및 개성표현, 정체성에 대해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젠더이퀄리티의 '평등성' 과 '다양성'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요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 요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성'과 '인지·권리'로 나타났으며, '평등성'은 '개성표현' 요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특성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이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졌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젠더이퀄리티'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 '평등성' 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인지·권리'와 '다양성' 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는 '인지·권리' 변수에 대해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젠더 이퀄리티는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젠더 이퀄리티는 현대사회의 여성과 남성들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배경	3
1. 젠더이퀄리티	3
2. 자아존중감	7
3. 외모관리행동	11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문제	15
2. 연구절차	16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17
IV. 연구결과 및 논의	19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9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측정	21
3.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24
4.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상관관계	31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분석	33
6.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41
7.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52

V. 결론 6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표 2〉 설문지의 구성	23
〈표 3〉 젠더이퀄리티 요인분석 결과	26
〈표 4〉 자아존중감 요인분석 결과	28
〈표 5〉 외모관리행동 요인분석 결과	31
〈표 6〉 상관관계분석	33
〈표 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젠더이퀄리티 특성 차이분석	35
〈표 8〉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특성 차이분석	38
〈표 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차이분석	41
〈표 10〉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44
〈표 11〉 젠더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45
〈표 12〉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47
〈표 13〉 젠더이퀄리티 및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48
〈표 14〉 젠더이퀄리티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54
〈표 15〉 젠더이퀄리티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55
〈표 16〉 젠더이퀄리티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에 미치는 영향	57
〈표 17〉 젠더이퀄리티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에 미치는 영향	59

I . 서 론

최근에는 새로운 남성성 ‘꽃미남’이나 ‘메트로 섹슈얼’ 등 성 역할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어 기존의 남성 역할에서 벗어나 남성들도 의복, 화장 등 다양한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백인선, 2007).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다. 자신의 이상적 외모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논하기 어려울 만큼 외모관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시원, 2004).

사람의 신체 외모에 근거하여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흐름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으며 자신의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 외모관리행동이 더 이상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구분하는 행위의 지표가 아닌 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항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임인숙, 2005).

우리는 사회에서 일관된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 누구나 남성적, 여성적 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 속성들을 억누르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성적, 여성적 역할에 과도하게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반대 성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판타지, 적대감, 사회의 성적 역할 기대를 투영하여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남들이 기대하는 성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맞는 성 역할을 창조해야 한다.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창의력이 방출되며, 사고는 더욱 유연해질 것이다. (로버트 그린, 2019).

대중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광고에서도 젠더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광고 미디어 속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섹슈얼리티를 강조하지만 여성은 행위의 주

체로, 남성은 오히려 시선의 대상이 되었다. 남녀 구분 없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이분법을 해체하며 새로운 젠더 이미지를 제시함을 알 수 있었다(오주연, 2010).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성 역할의 변화에 따라 성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현대 남성복에 표현된 젠더리스의 스타일을 연구했다.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재의 사회적 현상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안광숙, 2018).

젠더 가치관도 한국 현대 패션과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한국 젠더의 특수성으로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았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 가치관은 성적 정체성의 표현뿐 아니라 인성 및 품격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고 개인의 성향과 취향,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자신의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미적 태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허예은, 하지수, 2018).

젠더 이퀄리티와 관련된 연구에서 젠더가 사회적인 이미지와 공통체의 양성 평등에 관한 능력, 심리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 볼 수 있었지만 연령대와 생물학적인 성별로 젠더 이퀄리티에 관한 인식과 관여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연구와 대상자들의 가치관과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0대부터 40대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젠더 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더 나아가 젠더 이퀄리티의 인식과 우리 사회의 긍정적 사회변화를 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젠더이퀄리티

1) 젠더이퀄리티 개념 및 특성

‘젠더이퀄리티’는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들이 동일한 권리, 자원, 기회, 보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니세프가 밝혔다(Roger LeMoynes, 2005).

호주의 퀸즐랜드 공과대학에서 젠더 연구를 진행하면서 등장하는 젠더들은 33가지가 있다.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트랜스 섹슈얼, 시스 젠더, 젠더 퀴어 등이 있다. 젠더는 사회적 성별을 의미한다. 이렇게 섬세하게 젠더들을 구분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개체를 평등하게 존중하기 위해서다. 젠더이퀄리티는 사회 내에서 각자가 어떤 성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이 어떠하더라도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다(노혜경, 2018).

사회학의 일부 및 관련 학문의 일부에서 사회적 성(社會的 性) 또는 젠더(Gender)는 단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남성, 여성 또는 간성 등의 상태) 또는 성별 기반 사회구성체(성 역할 등), 성 정체성 등을 의미한다. 자신을 여성/남성 구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논바이너리 또는 젠더퀴어라는 포괄적 용어로 구분된다(위키백과, 사회적 성). 1955년, 성 과학자 존 머니를 시작으로 생물학적 성과 역할로서의 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일부 사회과학계와 세계보건기구의 문서 등에서 이러한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젠더’가 ‘성별’을 포함하거나 또는

‘성별’ 그 자체로 쓰이기도 한다(위키백과, 사회적 성).

남녀가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성을 가진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심미옥 외 3인 2011).

젠더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로버트 스톨라가 1963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정신분석학대회에서 섹스와 다른 어떤 것으로 처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와 새로운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지목해 널리 알려졌다. 젠더는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역할, 정서, 성격, 동일시 등 사회학과 심리학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식기관이라는 해부학적 차이에 근거한 성을 섹스라고 한다면, 성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 동일시하는가 하는 문화적 성, 사회적 성은 젠더라고 한다(조현준, 2018).

2019년 시행된 양성평등 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양성평등기본법, 2014).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2014).

2017년, UN의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5번째는 젠더이퀄리티다. 젠더이퀄리티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미래 세상을 위한 필수 토대다. 젠더이퀄리티는 경제 참여 및 의사 결정을 포함해 성별(sex)와 관계없이 자원과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상태와 성별과 상관없이 다른 행동, 포부 및 요구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UN, gender equality).

2) 선행연구

젠더 정체성의 범주들이 힘에 의해 구성된 전략적 도구이며 효과임을 분석한 김정란(2006)은 이것이 재의미화를 요구하는 전복적 저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버틀러의 행위주체성은 행위와 의미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 저자임을 주장하는 주체의 속성이나 권한이 아니라고 보여준다. 즉 정체성을 구성하는 반복적 실천에 참여하는 것일지도 모르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정체성에 있어서 변화와 변형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젠더정체성을 연구한 성례아(2007)는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형상화 양상이 젠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캐릭터와 젠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하는 캐릭터로 나누었다. 어린이 관객들이 올바른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젠더 정체성의 제시의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이미지를 갖지 않고, 젠더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비전이 제공 되어야함을 시사하였다.

장소연(2018)은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페미니즘 미술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자아정체성을 함양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감상과 체험을 통해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존중하며 공동체의 양성평등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김혜균(2012)은 사회에서 성(Gender)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기 보다는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권리와 책임이 양분되지 않고 양성평등화 사회 속에서 남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본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김정선, 민영(2012)은 동성애 소재 작품의 등장

이 흥행으로 성공해서 동성애 코드에 대한 대중문화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동성애를 비현실적 판타지로 그려내 수동적으로 전시하고 강조하며 대중 취향에 소구됨을 말하였다. 따라서 대중적인 소구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동성애에 관련된 현실적인 갈등이나 그 사회정치적 의미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국 영화의 시각적 프레임 특징을 분석했다.

젠더를 분석한 박미선(1999)은 젠더 정체성은 우선적으로 생후의 심리적 영향의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젠더 정체성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남녀의 동등함을 이론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영향력있는 저널들과 이론가들은 성(Sex)보다는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사이버 공론장에서 젠더의 정체성과 관점, 그리고 구성적 소통적 특성을 추적한 김수정, 김예란(2008)은 사이버 공론장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해서 젠더 담론의 속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사이버 공론장은 젠더의 문제에서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며, 복잡한 관계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젠더 정체성, 관점, 소통적·형식적·내용적 차원으로 분석하였고, 분석의 결과는 한국의 사이버 공론장은 발언 내용 및 형식에서 탈젠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젠더 이퀄리티와 관련된 연구에서 젠더가 사회적인 이미지와 공동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능력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 볼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

1) 개념 및 특성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자기 가치와 자기 수용 정도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써 자아개념과 연합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Baumeister. R. F., 1994).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경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에 대해 더 행복을 느끼며 새로운 일을 많이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송인섭, 1989).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 힘, 좋은 자질에 주목한다. 따라서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목표 설정과 노력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Baumeister. R. F&Tice. D.M., 1985).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기 가치와 자기 수용정도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써 자아개념과 연합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Baumeister. R. F., 1994).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경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발전과 증진을 기대하며 자신을 좋아하는 느낌으로 표출하게 된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현재에 대해 더 행복을 느끼며 새로운 일을 많이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황윤정, 유태순. 2008).

여러 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을 다양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정도와 자기존중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 존경(self-respect), 자기 가치(self-worth), 자기 사랑(self-love), 자기 확신(self-confidence), 자아 평가(self-evaluation), 자기수용(self-acceptance) 등과 흡사하게 일컬어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self-concept) 이다(Wells, L. Edward, & Gerald Marwell.).

교육심리학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개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다. 자아개념이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김진환, 2000).

자아존중감이 처음 언급된 이후,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적 요소 중 하나로서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해왔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가치감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평가한 결과라고 여겨져 왔다(Rosenberg M, 1965)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에서만 머물지 않고 긍정적 행동을 표출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긍정적 행동의 표출은 사회나 새로운 상황 적응을 원만하게 이끌어 줄 수 있었다(윤효순, 2006).

2) 선행연구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정미영(2018)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중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민감성, 신뢰감을 중요시 했다고 하였다.

김슬기(2019)는 메이크업 행동으로 인해 그 행동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 행동을 한 여성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세분화한 결과, 메이크업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메이크업 행동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하였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백경숙, 김효숙(2013)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다고 했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는 경향으로 해석됨을 보여주었다.

제희선, 이강훈(2019)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에서 아동의 활동성과 자아존중감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의 성별, 연령, 기질,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분석했다. 남아보다는 여아일수록 자아존중감 변화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확인했다.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고미나, 박재황(2008)의 연구 결과가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주체성과 미래 확신성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해 하위변인(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외모관리행동과 창조성에 관한 고찰을 한 최영순(2015)은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까지 신체적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과 외모를 관리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개인의 신체적 외모가 사회생활이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선행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외모관리행동은 창조성에 있어 예술적 욕구에 해

당하고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다양한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3. 외모관리행동

1) 개념 및 특징

외모관리행동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모를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이용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행동이다(전종국, 2008). 또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세련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이며(설현진, 2010). 이 행동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모두 반영한다.

자기 자신만의 이미지 연출에서 보여 지는 태도, 행동을 통해 성격, 호감도, 취향, 생각, 지위, 직업 등을 파악하게 되어 외면과 내면의 전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Lee.M.R, 2001).

옷차림과 화장 등은 얼굴, 체형과 다르게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의미 있는 물건이나 예쁜 액세서리로 몸을 장식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사람은 자기 내면의 욕망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한다.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외모가 달라짐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인지하는 내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 결과 나의 태도와 가치관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시뷰야 쇼조, 2019).

미의 추구는 사회의 모든 집단과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스스로를 치장하는 것은 인간 삶의 표현들 중 하나다.

‘외모’는 첫눈에 우리와 타자를 분리한다. 첫 판단은 외모를 보고 내려진다. 신체의 비율과 개성적 표현력을 가진 얼굴에 의도적인 변화를 표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가능성 덕분에 옷으로 몸을 표현하는 유행이 생겨났고, 수시로 바뀌는 사회적 규범이 등장했다. ‘자기표현’, 오늘날 유럽 사회처럼 대담할 정

도로 과감하게 노출하는 소녀들의 자유분방함은 양성평등으로 얻어진 강한 자의식의 표현이다(요제프H.라이히홀프, 2012).

사람들은 결점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지향한다(황윤정, 유태순. 2008).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타고난 외모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김선희, 2003)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모습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한다(Kaiser, 1990; 황진숙, 김윤희. 2006).

오늘날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배경에는 사회 속에서 남녀 본연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부상되고, 메이크업이 근대의 성 역할에 따른 외모표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기 어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남성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시대적 추세와 유행의 흐름 속에서 다변화, 평등화 된 성 역할 속에 보다 적극적인 자아 표출의 수단인 동시에 관계 형성의 신선한 무드를 형성하는 트렌드이다(김혜균, 2012).

2) 선행연구

‘그루밍족’이라는 신조어는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말한다. 그루밍(grooming)은 마부가 말을 목욕시키고 빗질하는 것을 뜻하는 그룸(groom)에서 유래한 단어로 ‘차림새, 몸단장’이라는 뜻이다. 그루밍족은 외모도 경쟁력이라 여기며 외모를 가꾸는 것을 중요시하는 남성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피부관리나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위키백과, 그루밍족). 이렇게 외

모관리행동을 하는 행위는 남과 여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권이해도와 남성화장태도에 관련된 연구에서 배소현, 양수진(2019)은 인권, 성 평등 인식에 따라 남성의 메이크업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외모관리행동이 남성들 스스로를 표현하기에 활용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Dion, Berscheid & Walster(1972)는 매력적인 용모를 가진 사람은 영리하고, 실력이 있고, 친절하며, 흥미롭고, 강하고, 사교적이고, 이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매력적인 용모는 후광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안채리 외 2인(2011)은 남성들이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자대학생 외모지향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모지향 수준의 증가는 외모관리행동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우경(2019)은 시대의 변화로 인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외모관리행동이 주변인의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심리적 행복감과 자아효능감간에 관계를 분석한 박세진(2018)의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능감에는 피부관리와 의복관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공에 미치는 메이크업의 영향력 및 메이크업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분석한 박장순, 권혜진(2017)은 액세서리 착용에서부터 성형수술까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이 남성들에게 사회적 성공에 외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까지의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상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젠더 이퀄

리티에 대한 관여도와 외모관리행동의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에서의 남성과 여성들의 차이점과 젠더 이퀄리티 인식,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춰 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젠더이퀄리티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알아본다.

셋째,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인구통계적 차이분석을 알아본다.

다섯째,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의 각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여섯째,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매개효과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한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변수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Factor Analysis(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소비자들의 젠더이퀄리티, 외모관리행동,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t-test(검증)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젠더이퀄리티, 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과 경기권 거주자로 10대 ~ 40대 여성과 남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지 조사 시기는 2020년 2월18일 ~ 3월 2일 이었으며, 설문지는 총 390부를 배부하여 377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2명을 제외하고 36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 기법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실시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젠더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총 365명 중 성별로는 남성이 54.2%로 여성 45.8%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 20.0%, 40대 8.8%, 10대 8.5% 순이었다.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졸업이 6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재학/졸업 19.2%, 대학원 재학/졸업 16.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40.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23.0%, 생산직/기타 21.6%, 사무직/자영업 15.1 순으로 차지하였다. 개인 월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9.2%, 300만원 이상 19.2%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별로는 미혼이 87.7%로 기혼 12.3%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65

구분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167	45.8
	남성	198	54.2
연령	10대	31	8.5
	20대	229	62.7
	30대	73	20.0
	40대	32	8.8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70	19.2
	대학교 재학/졸업	234	64.1
	대학원 재학/졸업	61	16.7
직업	학생	147	40.3
	전문직	84	23.0
	사무직/자영업	55	15.1
	생산직/기타	79	21.6
개인 월수입	100만원 미만	152	41.6
	100~300만원 미만	143	39.2
	300만원 이상	70	19.2
혼인여부	미혼	320	87.7
	기혼	45	12.3
계		365	100.0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를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이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지, 곧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 (Principle Components)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과 관련하여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베리맥스는 요인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 변수의 요인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30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은 .50이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50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요인분석은 분석방법의 특성상 각 항목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는데 KMO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각 항목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사용 항목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가를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Kaiser-Mayer-Olkin(KMO)는 변수 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통 KMO값이 .90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50이하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

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이상이면 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수치를 분석하였으며, Durbin-Watson 수치가 2에 가까울수록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하였다. 젠더이퀄리티 15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외모관리행동 17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개인 월수입, 혼인여부 등에 관한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구분	측정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척도	출처
1	젠더 이퀄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성 · 인지·권리 · 다양성 	15	5점 Likert 척도	김정란(2006) 성례아(2007) 장소연(2018)
2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자아존중감 · 부정적자아존중감 	10	5점 Likert 척도	Rosenberg (1965) 정미영(2018) 김슬기(2019)
3	외모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 · 자신감 · 타인존중 · 개성표현 	17	5점 Likert 척도	안채리(2011) 황진숙, 김윤희(2006) 김정하(2017)
4	인구통계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최종학력 · 직업 · 개인월수입 · 혼인여부 	6		주하나(2015) 김정하(2017) 정소희(2018) 박세진(2018)
		계	48		

3.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1) 젠더이퀄리티의 차원

젠더이퀄리티는 김정란(2006), 성례아(2007), 장소연(2018)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10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젠더이퀄리티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313.991$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값이 0.850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653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7개의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74.450%로 나타났고, 전체신뢰도 계수는 0.86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5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28.646%)은 나는 젠더에 대해 관심이 있다, 나는 모든 젠더가 같은 자유를 누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젠더가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양한 젠더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평등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26.120%)는 나는 모든 젠더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젠더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지·권리'로 명명하였다.

요인3(19.685%)은 나는 젠더 다양성이 더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젠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양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세 개의 요인적재 값이 $\pm .6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젠더이퀄리티 요인분석 결과

item	factor			공통성
	평등성	인지·권리	다양성	
나는 젠더에 대해 관심이 있다.	.781	.020	.206	.653
나는 모든 젠더가 같은 자유를 누려야한다고 생각한다.	.751	.446	.100	.773
나는 모든 젠더가 같은 권리를 누려야한다고 생각한다.	.650	.561	.161	.763
나는 다양한 젠더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86	.305	.433	.721
나는 모든 젠더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229	.855	.096	.792
나는 모든 젠더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117	.836	.232	.766
나는 젠더 다양성이 더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107	.139	.885	.814
나는 젠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424	.184	.605	.674
고유값	2.292	2.090	1.575	
분산(%)	28.646	26.120	19.685	
누적(%)	28.646	54.765	74.450	
신뢰도(Cronbach's α)	.818	.762	.590	
전체신뢰도				.860
KMO와 Bartlett 검정	KMO = .850, $\chi^2 = 1,313.991$			$p < .000$

*** $p < .001$

2) 자아존중감의 차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dlf-Esteem)과 정미영(2018), 김슬기(2019), 정소희(2019)의 연구에서 공통된 10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504.205$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값이 0.899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713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3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75.221%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904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823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1(43.448%)은 나는 장점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31.774%)는 나는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다.

이 두 개의 요인적재 값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자아존중감 요인분석 결과

item	factor		공통성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나는 장점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840	.321	.809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839	.200	.744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71	.353	.720
나는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49	.390	.713
나는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190	.881	.812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391	.766	.740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다.	.536	.664	.728
고유값	3.041	2.224	
분산(%)	43.448	31.774	
누적(%)	43.448	75.221	
신뢰도(Cronbach's α)	.886	.823	
전체신뢰도	.904		
KMO와 Bartlett 검정	KMO = .899, $\chi^2 = 1,504.205$ $p < .000$		

*** $p < .001$

3) 외모관리행동의 차원

외모관리행동은 황진숙, 김윤희(2006), 김정하(2017), 안채리, 조찬휘, 임은진(2011)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질문자가 17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2,521.011$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값이 0.783으로 나타났다으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636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5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73.368%로 나타났고, 전체신뢰도 계수는 0.797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613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29.982%)은 나는 남성은 남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성이 반드시 남성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성이 반드시 여성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성이 여성처럼 꾸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성이 남성처럼 꾸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체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9.929%)는 나는 외모관리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나는 개성 표현을 하기 위해 외모관리에 투자한다, 나는 외모에 관심이 많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신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2.283%)은 나는 외모관리 행동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나의 개성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개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인존중'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11.174%)는 나는 외모관리 평가는 남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외모관리 평가는 스스로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개성표현'으로 명명하였다.

이 네 개의 요인적재 값이 $+ .6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외모관리행동 요인분석 결과

item	factor				공통성
	정체성	자신감	타인존중	개성표현	
나는 남성은 남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852	-.077	.025	.156	.757
나는 남성이 반드시 남성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836	-.022	.178	-.008	.731
나는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831	-.149	-.009	.104	.723
나는 여성이 반드시 여성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803	-.005	.115	.046	.660
나는 남성이 여성처럼 꾸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735	.120	.353	-.024	.680
나는 여성이 남성처럼 꾸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698	.079	.378	-.015	.636
나는 외모관리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013	.920	.014	.030	.847
나는 개성표현을 하기 위해 외모관리에 투자한다.	-.014	.917	.044	.078	.849
나는 외모에 관심이 많다.	-.067	.867	.052	.079	.764
나는 외모관리 행동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204	.067	.799	.116	.697
나의 개성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개성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189	.012	.778	.066	.646
나는 외모관리 평가는 남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171	-.065	.018	.885	.816
나는 외모관리 평가는 스스로 한다고 생각한다.	-.026	.309	.186	.775	.732
고유값	3.898	2.591	1.597	1.453	
분산(%)	29.982	19.929	12.283	11.174	
누적(%)	29.982	49.911	62.194	73.368	
신뢰도(Cronbach's α)	.896	.895	.613	.619	
전체신뢰도					.797
KMO와 Bartlett 검정					KMO = .783, $\chi^2 = 2,521.011$ $p < .000$

*** $p < .001$

4.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다음 <표 6>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시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젠더이퀄리티의 모든 변수와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변수는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이퀄리티 중 '인지·권리' 및 '다양성' 변수와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및 '타인존중' 변수도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 변수는 젠더이퀄리티 중 '평등성'과 '인지·권리' 변수 그리고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표 6〉 상관관계분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평등성	인지 · 권리	다양성	긍정적 자아존 중감	부정적 자아존 중감	정체성	자신감	타인 존중	개성 표현
평등성	3.948	.850	1								
인지· 권리	3.840	1.106	.576**	1							
다양성	3.890	.849	.641**	.416**	1						
긍정적 자아 존중감	3.915	.876	.016	.042	.087	1					
부정적 자아 존중감	3.729	1.000	-.112*	.007	.027	.718**	1				
정체성	3.884	.927	.510**	.278**	.442**	-.092	-.095	1			
자신감	3.483	.996	.080	.066	.144**	.219**	.156**	-.032	1		
타인존중	4.555	.579	.434**	.297**	.332**	.154**	.057	.400**	.113*	1	
개성표현	3.214	.990	.114*	.169**	.231**	.205**	.225**	.172**	.193**	.210**	1

* $p < .05$, ** $p < .01$, *** $p < .001$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분석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젠더이퀄리티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젠더이퀄리티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 t-test, Student's 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서 Scheffe의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별로 젠더이퀄리티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별, 연령, 최종학력 및 직업의 경우 평등성, 인지·권리 및 다양성 전부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 월 수입별 구분의 경우에 젠더이퀄리티 중 평등성에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평등성의 개인 월 수입별 차이는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100~300만원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 여부별 구분의 경우에 젠더이퀄리티 중 평등성에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평등성의 혼인 여부별 차이는 미혼 > 기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젠더이퀄리티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젠더이퀄리티	평등성	인지·권리	다양성
전 체			3.95	3.84	3.89
성별	여성		3.89	3.78	3.87
	남성		4.00	3.89	3.90
	t		-1.183	-.925	-.333
	평균비교		-	-	-
연령	10대 ^a		3.95	4.13	3.81
	20대 ^b		3.96	3.79	3.90
	30대 ^c		4.02	3.90	3.95
	40대 ^d		3.71	3.77	3.75
	F		1.035	.960	.532
	사후분석		-	-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3.80	3.91	3.81
	대학교 재학/졸업		3.99	3.83	3.89
	대학원 재학/졸업		3.95	3.79	3.98
	F		1.450	.235	.585
	사후분석		-	-	-
직업	학생		4.04	3.76	3.88
	전문직		3.81	3.81	3.93
	사무직/자영업		4.01	4.10	4.04
	생산직/기타		3.89	3.84	3.77
	F		1.518	1.305	1.172
	사후분석		-	-	-
개인 월 수입	100만원 이하		4.12	3.95	3.94
	100~300만원 이하		3.84	3.75	3.89
	300만원 이상		3.78	3.78	3.79
	F		5.931 ^{***}	1.411	.695
	사후분석		a>c, a>b	-	-
혼인 여부	미혼		3.98	3.85	3.91
	기혼		3.69	3.80	3.74
	t		2.207 [*]	.257	1.232
	평균비교		a>b	-	-

^{*}p<.05, ^{**}p<.01, ^{***}p<.001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 t-test, Student's 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서 Scheffe의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별로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후분석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연령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구분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최종 학력별 차이는 대학원 재학/졸업 > 고등학교 재학/졸업, 대학교 재학/졸업 > 고등학교 재학/졸업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도 대학원 재학/졸업 > 고등학교 재학/졸업, 대학교 재학/졸업 > 고등학교 재학/졸업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구분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직업별 차이는 전문직 > 생산직/기타, 전문직 > 학생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전문직 > 생산직/기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월 수입에 따른 구분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개인 월 수입별 차이는 3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 100~300만원 이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도 3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 100~300만원 이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후분석에서도 기혼 > 미혼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전 체			3.92	3.73
성별	여성		3.98	3.83
	남성		3.86	3.64
	t		1.392	1.787
	평균비교		-	-
연령	10대		3.49	3.40
	20대		3.93	3.73
	30대		3.98	3.77
	40대		4.07	3.94
	F		2.940*	1.641
	사후분석		-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3.58	3.41
	대학교 재학/졸업		3.98	3.76
	대학원 재학/졸업		4.07	3.97
	F		7.036**	5.442**
	사후분석		c>a, b>a	c>a, b>a
직업	학생		3.80	3.61
	전문직		4.18	3.99
	사무직/자영업		4.11	3.96
	생산직/기타		3.72	3.50
	F		5.748**	5.055**
	사후분석		b>d, b>a	b>d
개인 월 수입	100만원 이하		3.77	3.57
	100~300만원 이하		3.89	3.70
	300만원 이상		4.28	4.14
	F		8.538***	8.360***
	사후분석		c>a, c>b	c>a, c>b
혼인 여부	미혼		3.89	3.68
	기혼		4.07	4.11
	t		-1.254	-2.764** .006
	평균비교		-	b>a

* $p<.05$, ** $p<.01$, *** $p<.001$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 t-test, Student's 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서 Scheffe의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별로 외모 관리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자신감 및 개성표현에 대해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후분석에서도 여성 > 남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는 정체성 및 타인존중에 대해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정체성의 연령별 차이는 10대 > 40대, 20대 > 40대, 30대 > 40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존중도 20대 > 40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구분에서는 정체성에 대해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정체성의 최종 학력별 차이는 대학교 재학/졸업 > 대학원 재학/졸업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구분에서는 개성표현에 대해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직업별 차이는 사무직/자영업 > 학생, 전문직 > 학생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월 수입에 따른 구분에서는 정체성 및 개성표현에 대해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정체성의 개인 월 수입별 차이는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100~300만원 이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개성표현도 100~3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결과 정체성에 대해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후분석에서도 미혼 > 기혼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외모관리행동			
		정체성	자신감	타인존중	개성표현
전 체		3.88	3.48	4.55	3.21
성별	여성	3.97	3.66	4.53	3.45
	남성	3.81	3.33	4.58	3.02
	t	1.697	3.248**	-.753	4.269***
	평균비교	-	a>b	-	a>b
연령	10대	4.10	3.67	4.45	3.02
	20대	3.97	3.53	4.60	3.21
	30대	3.88	3.31	4.60	3.35
	40대	3.09	3.36	4.27	3.14
	F	9.590***	1.405	3.577*	.929
	사후분석	a>d, b>d, c>d	-	b>d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3.89	3.35	4.48	3.14
	대학교 재학/졸업	3.96	3.52	4.57	3.24
	대학원 재학/졸업	3.60	3.50	4.57	3.18
	F	3.651* .027	.756	.756	.319
	사후분석	b>c	-	-	-
직업	학생	3.97	3.54	4.56	3.01
	전문직	3.64	3.58	4.47	3.42
	사무직/자영업	3.95	3.53	4.61	3.51
	생산직/기타	3.93	3.24	4.59	3.16
	F	2.538	1.978	.891	5.037**
사후분석	-	-	-	c>a, b>a	
개인 월 수입	100만원 이하	4.09	3.42	4.59	3.05
	100~300만원 이하	3.80	3.55	4.55	3.34
	300만원 이상	3.59	3.49	4.51	3.31
	F	8.144***	.618	.469	3.672* .026
	사후분석	a>c, a>b	-	-	b>a
혼인 여부	미혼	3.96	3.51	4.57	3.20
	기혼	3.37	3.27	4.44	3.34
	t	3.176**	1.560	1.368	-1.167
	평균비교	a>b	-	-	-

* $p<.05$, ** $p<.01$, *** $p<.001$

6.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28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1.421,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특성 중 '평등성'에 해당하는 계수는 .440, '인지·권리'는 -.032, '다양성'은 .218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평등성'은 .403, '인지·권리'은 -.038, '다양성'은 .200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등성' 요인은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권리'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회귀식의 유의성은 .050으로 확인되어,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19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3.278,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특성 중 '평등성'에 해당하는 계수는 .233, '인지·권리'는 .034, '다양성'은 .059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평등성'은 .342, '인지·권리'은 .064, '다양성'은 .087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등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권리' 및 '다양성'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6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2.172,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특성 중 '평등성'에 해당하는 계수는 -.150, '인지·권리'는 .122, '다양성'은 .300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평등성'은 -.129, '인지·권리'은 .136, '다양성'은 .257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권리'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등성'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정체성	(상수)	1.421	.217		6.551	.000***
	평등성	.440	.071	.403	6.232	.000***
	인지·권리	-.032	.046	-.038	-.693	.489
	다양성	.218	.063	.200	3.435	.001**
		R = .532	R ² = .283	F = 47.610***		
외모관리행동	(상수)	2.847	.273		10.448	.000***
	평등성	-.037	.089	-.031	-.414	.679
	인지·권리	.017	.058	.019	.303	.762
	다양성	.184	.080	.156	2.302	.022*
		R = .146	R ² = .021	F = 2.629		
자아존중감	(상수)	3.278	.143		22.844	.000***
	평등성	.233	.047	.342	4.984	.000***
	인지·권리	.034	.030	.064	1.112	.267
	다양성	.059	.042	.087	1.406	.161
		R = .443	R ² = .196	F = 29.382***		
개성표현	(상수)	2.172	.264		8.214	.000***
	평등성	-.150	.086	-.129	-1.746	.082
	인지·권리	.122	.056	.136	2.183	.030*
	다양성	.300	.077	.257	3.877	.000***
		R = .260	R ² = .068	F = 8.744***		

* $p < .05$, ** $p < .01$, *** $p < .001$

(2) 젠더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젠더이퀄리티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특성 회귀식의 유의성은 .245로 확인되어,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특성 회귀식의 유의성은 .004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36의 설명력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3.915,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특성 중 '평등성'에 해당하는 계수는 -.319, '인지·권리'는 .087, '다양성'은 .190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평등성'은 -.271, '인지·권리'은 .097, '다양성'은 .16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등성' 요인은 0.1% 유의수준에서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성' 요인은 5% 유의수준에서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권리' 요인은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젠더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상수)	3.644	.241		15.130	.000***	
자 아 존 중 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평등성	-.092	.078	-.089	-1.177	.240
		인지·권리	.032	.051	.041	.634	.526
		다양성	.132	.070	.128	1.867	.063
			R=.107	R ² =.011	F=1.393		
	(상수)	3.915	.272		14.413	.000***	
부 정 적 자 아 존 중 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평등성	-.319	.088	-.271	-3.613	.000***
		인지·권리	.087	.057	.097	1.525	.128
		다양성	.190	.079	.161	2.386	.018*
			R=.189	R ² =.036	F=4.447**		

* $p < .05$, ** $p < .01$, *** $p < .001$

(3) 자아존중감 특성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특성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157로 확인되어,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4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2.511,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특성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계수는 .250,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002 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220,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00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004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3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4.190,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특성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계수는 .154,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064이므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VIF는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234,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11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 요인에 정(+)의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외모관리 행동 중 '타인존중'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에 대한 자아존중감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5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2.223,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특성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계수는 .102,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159 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090,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16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상수)	4.294	.225		19.094	.000***
정 체 성	긍정적 자아존중감	-.053	.080	-.050	-.665	.507
	부정적 자아존중감	-.055	.070	-.059	-.784	.434
		R = .101	R ² = .010	F = 1.864		
외 모 관 리 행 동	(상수)	2.511	.237		10.591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250	.084	.220	2.981	.003**
	부정적 자아존중감	-.002	.073	-.002	-.024	.981
		R = .219	R ² = .048	F = 9.075***		
타 인 존 중	(상수)	4.190	.139		30.136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54	.049	.234	3.139	.002**
	부정적 자아존중감	-.064	.043	-.111	-1.494	.136
		R = .172	R ² = .030	F = 5.525**		
개 성 표 현	(상수)	2.223	.235		9.468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02	.083	.090	1.224	.222
	부정적 자아존중감	.159	.073	.161	2.186	.029*
		R = .234	R ² = .055	F = 10.453***		

* $p < .05$, ** $p < .01$, *** $p < .001$

(4)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젠더이퀄리티,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젠더이퀄리티 및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정체성	(상수)	1.816	.281		6.461	.000***
	평등성	.442	.072	.405	6.161	.000***
	인지·권리	-.031	.046	-.037	-.681	.496
	다양성	.230	.063	.211	3.618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66	.068	-.157	-2.448	.015*
	부정적 자아존중감	.054	.060	.058	.895	.371
			R = .546	R ² = .298	F = 30.523***	
외모관리행동	(상수)	1.985	.349		5.687	.000***
	평등성	-.014	.089	-.012	-.154	.877
	인지·권리	.010	.057	.011	.168	.867
	다양성	.152	.079	.130	1.930	.054
	긍정적 자아존중감	.231	.084	.203	2.740	.006**
	부정적 자아존중감	.005	.075	.005	.069	.945
			R = .252	R ² = .064	F = 4.886***	
타인존중	(상수)	2.949	.186		15.889	.000***
	평등성	.239	.047	.351	5.054	.000***
	인지·권리	.031	.030	.060	1.036	.301
	다양성	.048	.042	.070	1.134	.258
	긍정적 자아존중감	.099	.045	.149	2.199	.028*
	부정적 자아존중감	-.008	.040	-.013	-.196	.844
			R = .148	R ² = .022	F = 5.597**	
개성표현	(상수)	1.273	.338		3.769	.000***
	평등성	-.092	.086	-.079	-1.069	.286
	인지·권리	.105	.055	.118	1.923	.055
	다양성	.260	.076	.223	3.404	.001**
	긍정적 자아존중감	.074	.082	.066	.908	.365
	부정적 자아존중감	.161	.072	.162	2.218	.027*
			R = .433	R ² = .188	F = 57.524***	

*p<.05, **p<.01, ***p<.001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29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1.816,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특성 중 '평등성'에 해당하는 계수는 .442, '인지·권리'는 -.031, '다양성'은 .230, '긍정적 자아존중감' -.166, '부정적 자아존중감' .054 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평등성'은 .405, '인지·권리'은 -.037, '다양성'은 .211,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157,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058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등성'과 '다양성' 요인은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권리'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6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1.985,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특성 중 '평등성'에 해당하는 계수는 -.014, '인지·권리'는 .010, '다양성'은 .152, '긍정적 자아존중감' .231, '부정적 자아존중감' .005 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평등성'은 -.012, '인지·권리'은 .011, '다양성'은 .130,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203,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005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2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2.949,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특성 중 '평등성'에 해당하는 계수는 .239, '인지·권리'는 .031, '다양성'은 .048, '긍정적 자아존중감' .099, '부정적 자아존중감' -.008 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평등성'은 .351, '인지·권리'은 .060, '다양성'은 .070,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149,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013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등성' 요인은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회귀식의 유의성은 .000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18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를 살펴보면 상수는 1.273,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특성 중 '평등성'에 해당하는 계수는 -.092, '인지·권리'는 .105, '다양성'은 .260, '긍정적 자아존중감' .074, '부정적 자아존중감' .161 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평등성'은 -.079, '인지·권리'은 .118, '다양성'은 .223,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066,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16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성' 요인은 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 표현'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젠더이퀄리티’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 2, 모형 3의 유의확률 결과를 확인하면 각각의 분석결과에 따라 영향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표 14>는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표 15>는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6>은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 17>은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을 나타낸다.

먼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젠더이퀄리티’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평등성’ 변수는 ‘모형 1 = .403 > 모형 2 = .393’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양성’ 변수는 ‘모형 1 = .200 < 모형 2 = .215’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지·권리’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는 ‘평등성’ 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젠더이퀄리티’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유의확률 F값의 변화량이 $p = .212$ 이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표 14〉 젠더이퀄리티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1	(상수)	1.421	.217		6.551	.000***
	평등성	.440	.071	.403	6.232	.000***
	인지·권리	-.032	.046	-.038	-.693	.489
	다양성	.218	.063	.200	3.435	.001**
	R = .532 R ² = .283 F = 47.610***					
2	(상수)	1.867	.275		6.787	.000***
	평등성	.428	.070	.393	6.109	.000***
	인지·권리	-.028	.045	-.033	-.611	.542
	다양성	.234	.063	.215	3.701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22	.047	-.116	-2.604	.010*
R = .545 R ² = .297 F = 37.974*** $\Delta R^2 = .013 \Delta F = 6.780^*$						
3	(상수)	1.627	.272		5.978	.000***
	평등성	.423	.072	.388	5.894	.000***
	인지·권리	-.027	.046	-.032	-.591	.555
	다양성	.228	.064	.209	3.567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52	.042	-.057	-1.249	.212
R = .535 R ² = .287 F = 36.153*** $\Delta R^2 = .003 \Delta F = 1.561$						

* $p < .05$, ** $p < .01$, *** $p < .001$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젠더이퀄리티를 독립변수로 두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에 대한 젠더이퀄리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젠더이퀄리티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1	(상수)	2.847	.273		10.448	.000***
	평등성	-.037	.089	-.031	-.414	.679
	인지·권리	.017	.058	.019	.303	.762
	다양성	.184	.080	.156	2.302	.022*
	R = .146 R ² = .021 F = 2.629					
2	(상수)	1.990	.341		5.831	.000***
	평등성	-.015	.087	-.013	-.172	.863
	인지·권리	.010	.056	.011	.174	.862
	다양성	.153	.078	.130	1.944	.053
	긍정적 자아존중감	.235	.058	.207	4.034	.000***
R = .252 R ² = .064 F = 6.123*** $\Delta R^2 = .042 \Delta F = 16.270^{**}$						
3	(상수)	2.248	.339		6.641	.000***
	평등성	.012	.089	.010	.136	.892
	인지·권리	.004	.057	.004	.071	.944
	다양성	.155	.080	.132	1.943	.053
	부정적 자아존중감	.153	.052	.154	2.927	.004**
R = .210 R ² = .044 F = 4.156** .003 $\Delta R^2 = .023 \Delta F = 8.570^{**}$						

* $p < .05$, ** $p < .01$, *** $p < .001$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젠더이퀄리티’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평등성’ 변수는 ‘모형 1 = .342 < 모형 2 = .354’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는 ‘타인존중’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젠더이퀄리티’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성실성’ 변수는 ‘모형 1 = .342 < 모형 3 = .368’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는 ‘타인존중’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표 16〉 젠더이퀄리티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 중 타인존중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1	(상수)	3.278	.143		22.844	.000***
	평등성	.233	.047	.342	4.984	.000***
	인지·권리	.034	.030	.064	1.112	.267
	다양성	.059	.042	.087	1.406	.161
	R = .443 R ² = .196 F = 29.382***					
2	(상수)	2.941	.181		16.210	.000***
	평등성	.241	.046	.354	5.212	.000***
	인지·권리	.031	.030	.059	1.024	.306
	다양성	.047	.042	.069	1.123	.262
	긍정적 자아존중감	.092	.031	.140	2.976	.003**
R = .464 R ² = .216 F = 24.729*** $\Delta R^2 = .019 \Delta F = 8.854^{**}$						
3	(상수)	3.061	.179		17.068	.000***
	평등성	.250	.047	.368	5.289	.000***
	인지·권리	.029	.030	.055	.953	.341
	다양성	.049	.042	.071	1.152	.250
	부정적 자아존중감	.055	.028	.096	1.997	.047*
R = .453 R ² = .205 F = 23.216*** $\Delta R^2 = .009 \Delta F = 3.989^*$						

* $p < .05$, ** $p < .01$, *** $p < .001$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젠더이퀄리티'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인지·권리' 변수는 '모형 1=.136 > 모형 2=.129'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성' 변수도 '모형 1=.257 > 모형 2=.234'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등성'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는 '인지·권리'와 '다양성' 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젠더이퀄리티'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으로 한 매개 회귀 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인지·권리' 변수는 '모형 1=.136 > 모형 3=.116'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다양성' 변수는 '모형 1=.257 > 모형 3=.223'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는 '인지·권리' 변수에 대해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다양성' 변수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7〉 젠더이퀄리티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1	(상수)	2.172	.264		8.214	.000***
	평등성	-.150	.086	-.129	-1.746	.082
	인지·권리	.122	.056	.136	2.183	.030*
	다양성	.300	.077	.257	3.877	.000***
		R = .260	R ² = .068	F = 8.744***		
2	(상수)	1.425	.332		4.287	.000***
	평등성	-.131	.085	-.113	-1.548	.122
	인지·권리	.115	.055	.129	2.098	.037*
	다양성	.273	.076	.234	3.569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205	.057	.181	3.602	.000***
		R = .317	R ² = .100	F = 10.019***	$\Delta R^2 = .032$	$\Delta F = 12.977***$
3	(상수)	1.357	.325		4.182	.000***
	평등성	-.084	.086	-.072	-.978	.329
	인지·권리	.104	.055	.116	1.892	.059
	다양성	.260	.076	.223	3.415	.001**
	부정적 자아존중감	.208	.050	.210	4.150	.000***
		R = .332	R ² = .110	F = 11.157***	$\Delta R^2 = .043$	$\Delta F = 17.220***$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중 '평등성'이 종속변수인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bel Test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젠더이퀄리티 중 '다양성'이 종속변수인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

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bel Test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젠더이퀴리티 중 '인지·권리'가 종속변수인 외모관리행동 중 '개성표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obel Test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젠더 이퀄리티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져 현재 세대의 사람들은 어느 세대보다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들을 통해 외모관리에 투자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외모를 가꾸는 10대 ~ 40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젠더 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54.2%로 여성 45.8%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졸업이 64.1%로 가장 많았다. 업별로는 학생이 40.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개인 월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여부별로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각 변인의 요인분석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젠더이퀄리티는 '평등성', '인지·권리'와 '다양성'으로 구분하고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되었으며 외모관리행동은 '정체성', '자신감', '타인존중'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젠더이퀄리티의 모든 변수와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변수는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이퀄리티 중 '인지·권리' 및 '다양성' 변수와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및 '타인존중' 변수도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자신감'

변수는 젠더이퀄리티 중 '평등성'과 '인지·권리' 변수 그리고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서 젠더이퀄리티는 개인 월 수입별 구분의 경우와 혼인 여부별 경우에 젠더이퀄리티 중 '평등성'에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최종학력, 직업, 개인 월 수입에 따른 구분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 중 혼인 여부의 경우만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특성 차이분석은 성별의 경우 자신감 및 개성표현, 연령에 따르면 정체성 및 타인존중, 최종학력에 따른 구분에서는 정체성, 개인 월 수입에서는 정체성 및 개성표현에 대해서만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등성'과 '다양성' 요인은 '정체성' 요인에 정(+)¹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다. 반면에 '인지·권리'요인은 '정체성' 요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존중'에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등성' 요인이 나타났다. '개성표현' 요인에는 '다양성'과 '인지·권리'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다. 젠더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다양성'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을 때,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자신감'과 '타인존중'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개성표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젠더이퀄리티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등성'과 '다양성' 요인이 외모관리행동 중 '정체성'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자신감' 요인에 정(+)¹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평등

성'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타인존중'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성'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도 '개성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검정에서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는 '인지·권리' 변수에 대해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10대부터 40대까지의 젠더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젠더이퀄리티 인식은 남성과 여성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각자 자신의 개성과 타인의 개성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래 사회의 구성원들이 젠더이퀄리티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획득과 자유로운 외모관리행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1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자가 한정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연령대의 대상들의 요인을 세분화하여 취향, 가치관, 젠더이퀄리티 태도,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의 성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젠더이퀄리티 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미나, 박재황 (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 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 69-85.
- 곽한솔 (2018) 2차 베이비붐세대의 자기보상소비행동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의 영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20대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 99-108.
- 김수정, 김예란 (2008) 사이버 공론장들의 젠더성과 담론구성의 특징, 미디어,젠더&문화, 5-36.
- 김슬기 (2019) 메이크업행동과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만족감의 상관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 (2006) 젠더 정체성은 왜 억압적인가, 한국여성철학, 6, 53-75.
- 김정선, 민영 (2012) 동성애에 대한 한국 영화의 시각적 프레임(visual frames), 미디어,젠더&문화, 89-117.
- 김정하 (2017) 남성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환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학지사.
- 김혜균 (2012) 남성메이크업특성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 635-640.
- 노혜경 (2018) 성평등, 젠더이퀄리티, 젠더평등 그리고 평등, 시사저널, 1482.
- 로버트 그린 (2019) 인간 본성의 법칙, 위즈덤하우스.
- 박미선 (1999) 젠더. 여성이론(1), 317-327.
- 박세진 (2018) 여성의 외모관리행동 심리적 행복감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 영향, 석사학위논문.
- 박장순, 권혜진 (2017) 성공에 미치는 메이크업의 영향력 및 메이크업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 231-237.
- 배소현, 양수진 (2019) 인권이해도가 남성화장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 소비자정책교육학회지, 122-123.
- 백경숙, 김효숙 (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와 가족기능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205-223.
- 백인선 (2007) 남성의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례아 (2007)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1), 150-157.
- 설현진 (2010)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양서각.
- 시뷰야 쇼조 (2019)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센시오.
- 심미옥, 추병완, 이주한, 서동엽 (2011) 양성평등교육. 하우.
- 안광숙 (2018) 현대 남성복에 컬렉션 표현된 젠더리스의 특성 연구,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9, 1543-1556.
- 안숙영 (2011)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 -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 여성학연구, 21, 7~37.
- 안채리, 조찬휘, 임은진 (2011) 남자대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4, 191-203.
- 안채리 (2011). 남자대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주연 (2010) TV 광고 춤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gender image)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제19권, 29~45.
- 요제프H. 라이히홀프 (2012) 미의 기원, 플래닛.
- 이시원 (2004) 공적, 사적 자기의식에 따른 바디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수, 김영옥, 김영재, 배향자 (2020) 인권이야기, 윤성사.
- 임인숙 (2005) 남성의 외모관리 허용 수위와 외모불안 지대, 한국사회학 39, 87-118.
- 임우경 (2019)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규범, 행동통제가 외모관리의 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혜영 (2019) 화장의 사회심리적기대효과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및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순 (2006) 가정환경과 청년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소연 (2018)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페미니즘 미술교육,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국 (2008) 외모관리서비스 이용 행동과 만족도 : 피부관리와 경락마사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영 (2018)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희선, 이강훈 (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별, 연령, 기질,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9, 31-60.
- 조현준 (2018) 쉽게 읽는 젠더 이야기, 행성B.
- 최영순 (2015)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외모관리행동과 창조성에 관한 고찰,

창조교육논총 17, 119-145.

최지성 (2002) 남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허예은, 하지수 (2018)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8, 1-19.

황윤정, 유대순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얼굴 및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6), 85-95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143-155

〈국의참고문헌〉

Baumeister, R. F. (1994) Self-esteem.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Baumeister, R. F., & Tice, D. M. (1985). Self-esteem and responses to success and failure: Subsequent performance and intrinsic motivation.

Butler, Judith (1990) Gender Trouble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Routledge.

Dion K. Berscheid & Walster (1972) What is beautiful is go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oger LeMoyne (2005) Promoting gender equality, UNICEF / NYHQ2005-1068.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1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ells, L. Edward, & Gerald Marwell.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인터넷>

위키백과, 그루밍족, 2019.12.20.

<https://ko.wikipedia.org/wiki/%EA%B7%B8%EB%A3%A8%EB%B0%8D%EC%A1%B1>

위키백과, 사회적 성, 2019.12.20.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A0%81_%EC%84%B1

UN, Gender equality, 2020.2.10.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gender-equality/>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2020.1.10.

<http://www.law.go.kr/main.html>

ABSTRACT

The Effect of Gender Equality 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 Hyun Bae
Make-up And Special Effects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society develops and changes, people are divided into various genders and attitudes rather than dichotomous methods of distinguishing people by sex. Factors, attitudes, and stereotypes that mean femininity and masculinity are changing and disappearing. Appearance can also be an act of all genders, not just of women. In advertisements and movies that the public sees, there are various expressions of gender, and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gender have also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People of different ages living in this era are feeling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gender awareness is also growing positively.

The study involved men and women in their teens to 40s. The aim is to understand how gender equality affects self-respect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February 18, 2020 to March 2, 2020. The survey methods were used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items used. The measurement tools used gender equality, self-respect,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cluding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measurement method used a five-point Likert scale and an optional question. Gender equality is a sub-factor of equality, cognition, rights, and diversity. Self-respect used a total of two sub factors: 'positive self-respect' and 'negative self-respect'.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consisted of four sub-factors: self-confidence, personality expression, identity, and respect for 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examin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gender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was not significant, but men were 8.4% higher than women. Those in their 20s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age groups, or 62.7 percent. By occupation, students had the most status, including teenagers and college students. Individuals earned the highest percentage of less than 1 million won per month. Marriage is highly distributed among unmarried people.

Second,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gender equality, self-respect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identity' variable among all the variables of gender quality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ositive self-respect' variable among self-respect. Among gender

equality, the variables 'recognition.right' and 'diversity' and the variables 'identity' and 'respecting others'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ere also not significant for the 'negative self-respect' variables among self-respect. Amo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self-confidence'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to the 'equality' and the 'right' variable among gender equality and the 'identity' variable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ll other variabl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indicated that there was only group-by-group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 monthly income and marital statu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self-respect, the distinction according to final education and occupation showed that there were group-by-group differences in both positive self-respect and negative self-respect. The difference analysi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characteristics differed in each group'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re were differences only in gender, age, final education, occupation, personal monthly income, confidence and individuality in marriage, identity and respect for others, identity, individuality, identity and individuality, and identity.

Fourth, gender equality's 'equality' and 'diversity' factors were found to have been significant to the 'identity' factor amo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factors of 'individual expression' among appearance

management actions were 'diversity' and 'recognition.right', and 'equality' was not significant to the factors of 'individual expression'. The impact of self-respecting characteristic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sitive self-respect" factor amo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but the "negative self-respect" factor was found to be not significant on the "other-respect" factor amo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However, the negative self-respect factor has been shown to affect the "individual expression" factor amo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Fifth, we looked into whether self-respect plays a role in influenci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hen "gender equality"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positive self-respect" was used as a parameter during self-respect,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a partial mediated effect only for the "equality" variable. It has also been shown that there are only partial mediated effects on the variables 'cognitive.right' and 'divers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negative self-respect' parameter during self-respect can be determined that there is a full mediating effect for the 'recognition.right' variable.

Looking at the above results comprehensively, we can see that gender equality affects self-respect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self-respect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refore, gender equality showed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that can lead

equal and equal lives to women and men in modern society, confirming that it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self-respect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부 록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자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젠더이퀄리티가 외모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하신 소중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 1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어 개인에 대한 사항이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각 설문에 대하여 귀하께서 느끼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메이크업, 특수분장학과

연구자 : 배 소 현

(qothgus100@me.com)

지도교수 : 김 경 희 교수

I. 다음은 젠더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젠더는 생물학적 여성성, 남성성을 강조하지 않는 성별을 말합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② 그렇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젠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모든 젠더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젠더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모든 젠더가 같은 권리를 누려야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모든 젠더가 같은 자유를 누려야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모든 젠더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젠더에 대해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모든 젠더는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모든 젠더가 차별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양한 젠더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모든 젠더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젠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모든 젠더가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젠더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젠더 다양성이 더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외모관리행동 가치관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모관리행동은 다이어트, 운동, 메이크업, 네일, 반영구, 시술, 성형, 미용실 등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② 그렇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외모관리가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외모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개성표현을 하기 위해 외모관리에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외모관리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외모관리 평가는 스스로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취향을 자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외모관리 평가는 남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신경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외모관리가 나의 개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남성은 남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남성이 반드시 남성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여성이 반드시 여성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개성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개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남성이 여성처럼 꾸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여성이 남성처럼 꾸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외모관리 행동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② 그렇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장점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종종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1.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습니까?

- ① 고등학교 재학/졸업 ② 대학교 재학/졸업 ③ 대학원 재학/졸업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② 전문직 ③ 사무직, 자영업 ④ 생산직, 기타

1. 귀하의 개인 월 수입은 어떻습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1. 귀하의 혼인 여부는 어떻습니까?

- ① 미혼 ② 기혼